

# 한국 작년 스타트업 투자유치 역대 최대

7년 간 연평균 증가율 106%...미국 21%·중국 94% 웃돌아  
투자금 회수 5.8%·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성장률 1.4%뿐

지난해 기준 83개국 633개 도시에 진출한 스타트업 우배는 적자 실적에도 소프트뱅크 등 투자자들로부터 총 160억 달러(19조80억 원)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신생 중소기업을 뜻하는 스타트업(Start Up)이 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스타트업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이 지난 13일 내놓은 '한·미·중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스타트업의 성장세는 미국이나 중국을 웃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성장 단계에 이르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은 여전히 미국이나 중국에 못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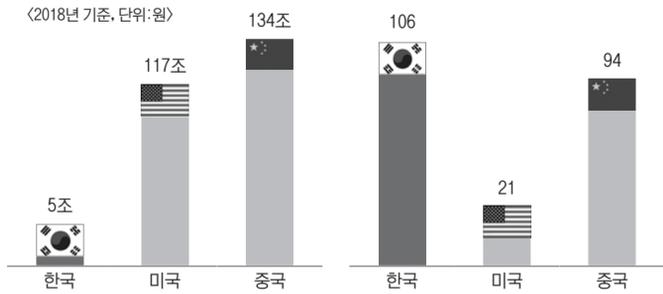
지난해 한국 투자액 유치는 45억달러(약 5조원)로, 미국은 991억달러(약 117조원), 중국은 1131억달러(약 134조원)의 투자액을 기록했다.

한국 투자 유치의 연평균(7년 기준) 증가율은 106%로 미국(21%)과 중국(94%)을 웃돌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스타트업 투자 비중 역시 역대 최고인 0.28%를 기록했다. 미국은 0.48%, 중국은 0.84%로 집계됐다.

한국은 정부, 미국은 정부와 스타트업 보육을 담당하는 '액셀러레이터', 중국은 미국계 '벤처캐피탈' (CVC)이 주요 투자자였다.

한국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는 최근 양적으로 크게 팽창했지만, 기업의 폭발적인 성장(스케일업)이나 투자금 회수(엑시트) 부족으로

■한·미·중 스타트업 유치 투자액 비교 ■투자액 연평균 증가율 (7년 기준, 단위:%)



로 '창업→성장→회수'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2013~2015년 투자를 받은 138개 한국 스타트업 중 인수합병(M&A)이나 기업공개(IPO) 등을 통한 투자금 회수에 성공한 곳은 5.8%에 그쳤다. 같은 기간 미국은 8667개 스타트업 중 12.3%가 투자금 회수에 성공해 상대적으로 뒤심은 부족했던 것

로 나타났다. 한국 스타트업은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도 미진했다.

한국은 138개 스타트업 중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비율이 1.4%에 그쳤다. 중국은 그 비율이 6.8%로 한국의 5배에 육박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산단공 광주전남본부, 산학협력 창업기업 육성

광주첨단산단 입주 기업

공동사업 지원 등 업무협약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행만)가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해 창업기업 육성에 나선다.

공단은 "광주첨단산단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16일 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공동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공단은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주)현성테크노(사장 신재봉)에서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회장 이용범), 광주 자동차융합 미니클러스터(회장 신재봉)와 '산·학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산·학 교류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기술자문 및 교육 ▲창업기업 육성 ▲우수인력 취업연계 ▲근로자 산재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협력해 광주첨단단지 입주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주)현성테크노 연구시설을 견학하고 스마트화 촉진 등 중소기업 지원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행만 본부장은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첨단단지를 포함한 광주 산업단지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한층 고도화 시키고 중소기업의 제조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백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시민단체 등의 로컬푸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모델 발굴 공모전'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화순 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aT제공>

## aT, 시민단체 로컬푸드 판매 지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업 공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한 컨설팅, 운영, 홍보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사는 로컬푸드(Local food) 기반 사회적 모델 발굴 지원 사업 공모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는 지역농산물 소비확대와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푸드플랜 확산 프로젝트'의 하나로, 공사는 다양한 활동사례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분야는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조직, 관련단체 등의 우수 활동사례

와 신규사업모델, 지역사회 시민활동 등 3개 분야이다.

예를 들어 농산물 클라우드 펀딩(모금)을 열거나 로컬푸드 신규 유통 채널을 만드는 등 판매를 활성화하거나 음식 폐기물 활용 신규 사업을 기획하는 것도 포함된다. 사회적기업 조식 제공 아파트, 사회적경제조직 협력 로컬푸드 도시락 개발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사업도 사례에 들어간다.

오는 31일까지 로컬푸드·직거래종합정보 사이트인 '바로정보'(baroinfo.com)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선발된 단체는 분야별로 2000만~5000만원의 운영비 뿐 아니라 홍보 및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지원을 받게 된다.

/백희준 기자 bhj@

## 금융위, 한국 핀테크 동향 세미나 개최

20일 서울창업허브

금융위원회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2019 한국 핀테크 동향 세미나'를 연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세미나에서 올해 당국의 한국 핀테크 동향 보고서가 공개되고 핀테크 전문가들이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종합토론을 한다.

'2019 한국 핀테크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정유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의 주제로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신승현 데일리금융 대표, 이승현 스톤브릿지벤처스 이사, 안병욱 KB 이노베이션 허브 팀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당국은 매년 핀테크 산업 변화를 비교·분석한 핀테크 동향 조사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계현 원장의

## 특 특 창업이야기



### 개인창업 보다 안전한 '팀 창업'

정부가 지자체의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자금 중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창업을 한 이후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의외로 창업성공률이 높지 않다. 왜 그럴까? 아마도 그런 실패의 주요 이유들을 짚아 보자면 제한된 상권으로의 입점 조건과 운영자금의 부족 그리고 경험과 내공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경쟁력을 채 갖추지도 못하고 시작한 창업이 그런 결과를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런 예비창업자들의 속사정을 정부가 지자체가 참고한다면 지원의 대상을 개인창업이 아닌 2~5인 이내로 구성되는 팀(Team)창업 위주의 지원이 오히려 창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원결과의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해본다.

그렇다면 왜 개인창업 보다 팀창업이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더 강한지 그 이유들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장점은 참여하는 팀원들의 창업자금을 합해 창업자금의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창업아이템의 선택지가 더 넓어지고 점포의 규모도 더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된다. 두 번째는 팀원들이 있기에 직원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서 인건비 지출이 최소화돼 운영자금에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세 번째는 팀원들 각자의 경험과 개성과 장점들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시켜서 좀 더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사업의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한 사람의 경험과 개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개인창업과 달리 팀원들간의 다양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운영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팀창업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좋은 창업형태다. 네 번째는 팀원들 간에 정확한 역할분담과 협업을 통해 좀 더 전문적인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1인 다역을 요구하는 개인창업 보다는 팀원들의 적성과 역량이 맞는 역할분담형 운영 방식은 확실히 그 경쟁력이 더 뛰어나기에 그만큼 성공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

다섯 번째는 협동조합 형태로도 운영이 가능해 정부의 좀 더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협동조합 지원사업의 응모를 통해 좀 더 안정적인 확장형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섯 번째는 하나의 사업장을 협업을 통해 성공시킨 후 축적된 경험과 자본을 바탕으로 다시 추가 사업장의 성공적인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팀창업으로 시작해 각자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히 쌓인 상태에서 다시 참여한 팀원들이 순차적으로 분화해 개인창업화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히 훌륭한 창업전략이 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과 팀을 짤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참고할 겸 팀창업의 유형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자.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가족형 팀창업,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친구형 팀창업, 창업교육시에 만나서 팀창업을 하는 교육동기형 팀창업, 창업동아리 회원들끼리 함께하는 동아리형 팀창업, 경험이 많은 중장년과 패기 만만한 청년이 함께하는 청년실버팀창업 등이 대표적인 팀창업의 유형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유형별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팀원을 구성해 서로 믿고 의지하며 가장 안전하고 단단하게 꾸려가는 형태의 창업을 하는 것이 팀창업의 매력이자 장점이다. 이제는 더 단단한 창업을 위해서 팀창업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백희준 기자 bhj@

그린알로에

#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